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용주사 동종

임 운 식

바람이 불다 폭풍 금삭은 바람이다
비천하는 여인의 푸른 옷자락 끝으로
글국의 언덕 넘어
긴 세월 전더 온 생생의 아름이 펼쳐인다

세 속의 울음을 모두 쏟아내고 이제는 침묵하는 그녀
먼먼 마음 끝에 달았다가 돌아와
내 발끝까지 파고드는 그 간절한 울림
어느 심연에서 끓어오르는 염원인가

아! 깊이를 알 수 없으랴
가능할 수 없는 하늘의 뜻
오래된 역사의 한가운데 회오리가 알고
잔잔한 호수에 잔물결이 퍼져간다

동종 천년의 세월 곁에 서성이던 녹슨 낙엽들
수줍게 가을 속으로 몸을 숨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며 순결한 가슴이어> 중에서

임운식 시인은... 충남 부여 출생. 2005년 <시와 창작>으로
등단.

“멸빈은 사형,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야”

인터뷰- 조계종 제8대 원로의장 밀운 스님

“부족한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절
인연이 돼 원로이장이 됐습니다. 원로의장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원로 스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아
원로회의를 여법하게 운영할 뿐입니다.”
조계종 제8대 원로회의에서 선출된 밀
운 스님은 12월 4일 기자들과 가진 첫 인
터뷰에서 취임 소감에 대해 “중헌 종법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하겠다”고 밝히며
말마리를 풀었다. 매우 담담한 답변이다.
12월 11일 임기가 시작되지만 별도의 취임
법회도 없다고 했다. 그냥 ‘소임을 열심히
보겠다’는 의미다.

멸빈 승려 복권은 시대 과제
하지만 종단 발전을 위한 스님의 의지는
확고했다. 평소 밀운 스님이 추진했던 멸
빈 제적승려 사면복권 문제로 마찬가지다.
멸빈·제적이 돼야 할 스님들도 더러 있지
만 적지 않은 수가 감정적, 정치적으로 처
리된 부분이 많다는 게 밀운 스님의 주장
이다.

“조계종은 정화 이후 멸빈·제적 승려가
500명에 이릅니다. 제32대 총무원 집행부
당시 멸빈자 특별법을 만들고 소위까지 구
성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제 사면복
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중헌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중헌 제128조에는 ‘멸빈자
는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없다’는 단
서 조항이 있는 데 이를 삭제해달라고 중
앙총회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종단 화합을
위해서라도 사면복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숙제입니다.”

쇄신위, 종단 발전에 기여
원로회의와 종단 쇄신 불사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해서 밀운 스님은 종단쇄신위원장
소임을 내려놓을 것도 이날 자리에서 처음
밝혔다. 스님은 종단 쇄신 불사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함께 피력했다.
“원로회의로서 쇄신위원장 소임을 맡
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위 여론이 많더
군요. 그래서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인 쇄
신위 분회의서 사임 의사를 밝히려려고 합니

멸빈·제적자 감정적 처리 많아

중헌 내 단서조항 삭제 필요

총림 체제 전환은 긍정적 평가

쇄신위원장 사임 예정 ‘아쉬워’

잇단 승풍 실추, 전화위복 계기로

다. 쇄신위에서도 원로의원 스님이 세 분
이 있으니 새로운 위원장 선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간 쇄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밀운 스
님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잇단
승풍 실추 추문을 큰 소동없이 종단 쇄신
불사로 연결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쇄신위원회 설립은 백양사 도박 사태
이후 종단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발생
하면 대형 승려대회가 이뤄지는 등 혼란이
있을 범하지만 종단 쇄신위의 구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규 제정, 사찰 재정 투명
화, 승려 노후 복지, 종단 선거법 제정 등 4
가지 주요 사업을 잘 추진하면 분명 종단
발전은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제8대 원로회의장 밀운 스님은 12월 4일
첫 공식 인터뷰를 갖고 불교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소위 중헌 개정안 마무리 단계

원로회의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
다. 원로회의의 소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헌
개정안에 대해 스님은 마무리 단계라고 답
했으며, 사설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종단
에 등록하면 문제 없다고 했다. 승려복지
제도의 증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로회의가 중헌의 중헌 개정안을 부결
시킨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입니다. 그간
원로회의의 소위에서 논의한 사안이 너무 광
범위해 중헌 관련 부분만 정리해 총무원과
중회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원
로의원 스님들의 사설 사업 문제가 거론됐
는데, 사설 사업은 종단에 등록만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원로
스님들이 절 한칸이라도 없으면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종단 승려복지제도가 발전
해 스님들이 마지막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
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총무원 호법부가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미 검증 절차를 거
쳤는데 조사하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원로의원이나 대중사 법계 풍수를 위해
서는 몇 번에 걸쳐 이중 삼중으로 철저히
심사합니다. 이렇게 검증 절차를 거친 스
님들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애초에 총무원
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
로는 임명 전 더욱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총림은 ‘多多益善’

밀운 스님은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가
장 큰 어른이기도 하다. 최근 교구본사별
로 불고 있는 총림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스님의 의견을 물었다. 스님은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총림 제도는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방
장 스님과 임회의 뜻과 논의를 가지고 사
찰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가장 불
교적인 방법입니다. 방장 스님이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총림이 이
뤄지면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문종이 화합
되고 선거제도의 폐해도 막을 수 있습니
다. 일부 스님들은 총림이 너무 많다고 지
적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25개 교구본사
가 모두 총림이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근 불교계에 불고 있는 ‘정치
바람’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스님은
“정치는 정치인이 할 일이고, 스님은 수행
만 잘하면 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인터뷰 내내 스님의 대답은 항상 간단명
료하고 거스름이 없었다. 어려운 법보다는
불교와 종단, 사람에 대한 정(情)이 넘었다.
격외없는 스님이 이끄는 원로회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해 본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대제 국가 행사로 봉행돼야”

불교사회학, '서산대제 문헌적 근거' 주제 공청회

지난 4월 문헌고증을 통해 복원된 대흥
사 서산대제가 국가 제향으로 치러져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흥사 서산대제의 의례형식과 문헌적
근거’를 주제로 호국불교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장 법안 스
님은 “서산대제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서산
휴정 스님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
조 때 시작돼 정조 당시 해남 대흥사에 표

창사와 묘향산 보현사에 수충사를 세워 국
가제향으로 매년 봄·가을 봉행됐다”며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흥사
서산대사 추모제를 비롯해 표창사 사명대
사 추모제, 감사 영구대사 추모제 모두 사
찰이나 지방행사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서산, 사명, 처영 등 의승
들의 추모대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적 의미와 공로가 지대하기 때
문”이라며 “결코 종교적인 차원으로 해석
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종단에 대해서도 “의승군을 의병의 범주



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는 12월 6일 서산대제 의
례형식의 근거를 알아보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구국제
민의 공심으로 역사 현실에 참여한 스님들
의 숭고한 뜻을 선양해 나가야 한다”고 주
장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불교의례 교수 선발

2013학년도부터 승가대학 2학년 2학
기와 3학년 1학기 필수교과목으로 ‘불
교상용의례’를 지정할 것과 관련, 조계
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이 지도교수를
뽑는다.

조계종 교육원은 각 승가대학 운영위
원장과 학장 추천을 받아 승가대학이 소
재한 사찰에서 상주하는 노전 스님이나
의식을 담당 스님, 승가대 인근에 주석
하는 스님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직
접 염불교육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을 선
별해 지도교수로 위촉할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사미 교육기관은 중덕 이
상의 법계를 수지한 비구 스님과 사미니
교육기관은 정덕 이상의 법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이다. 교역자로서의 결격사
유가 없으면 된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원로회장 보운 평 원
원로위원 월 현 법 산
원로위원 정 인 울 산
원로위원 정 광 송 담
원로위원 법 등 울 각
원로위원 수 덕 동 곡
원로위원 정 허 법 운

총무원장 법 정
행정위원장 도 경
호법위원장 법 료
초심위원장 무 진
교육위원장 청 담
문화위원장 진 송
포교위원장 동 화

총무부장 법 성
재무부장 성 덕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해 오
사업부장 청 명

비구니원장 법 화
비구니부원장 현 운
법 규 위 원 장 설 산
인 권 환 경 위 원 장 해 덕

경북동부 총무원장 해 산
경북서부 총무원장 해 관
경북북부 총무원장 성 덕
경북중앙 총무원장 해 득
대구동부 총무원장 법 성
대구서부 총무원장 진 송
경기도 총무원장 자 운
충청도 총무원장 계 현
울산 총무원장 현 운

중앙신도회장 조태흠
중앙신도회사업부장 청 명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중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